

글로벌대학 정책과 지역산업화 리빙랩의 운영 양상

강원도와 강원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Regional Industrialization Living Labs under the Glocal University Policy: Cases of Gangwon Province and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유춘동*

국문요약 지역 소멸과 산업 공동화, 인구 구조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심화되면서, 지역 문제 해결과 산업 전환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 방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리빙랩(Living Lab)은 지역의 일상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과 관련된 기술 중심 정책이나 단기 사업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리빙랩은 단순히 1회성 이벤트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산업화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대학 운영에서 진행되는 강원도의 리빙랩 사례는 이러한 흐름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강원 지역에 맞게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모빌리티, 탄소중립 분야의 리빙랩은 지역의 생활 조건과 산업 전략을 결합한 공간으로 기능하며, 주민 참여를 통해 기술의 수용 가능성과 지속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 상황 속에서 강원대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을 운영함으로써 대학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주체로 부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글은 현재 리빙랩의 운영 구조와 확산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글로벌대학과 연계한 지역산업화 전략과 지속 가능한 리빙랩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글로벌대학 정책, 지역산업화 리빙랩, 대학-지역 협력, 현장 기반 검증, 지역 맞춤형 혁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 차례**
1. 서론
 2. 글로벌대학과 지역산업화 리빙랩의 형성과 구조
 3. 글로벌대학 주도 지역산업화 리빙랩의 운영 양상:
강원도와 강원대의 사례
 4. 글로벌대학 관점에서 본 지역산업화 리빙랩의 의미
 5. 마무리와 과제

1. 서론

지역 소멸과 산업 공동화,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현안이다.¹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확대,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 지역 산업 기반의 약화는 단일한 원인으로 생긴 문제가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행정 역량이나 단기적인 재정 투입만으로 해결하기 어

1 구형수,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전략」, 국토연구원, 2018; 유한별, 「한국 지방소멸 요인과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 머신러닝 방법을 통한 탐색」, 『지방정부연구』 24(4), 지방정부연구학회, 2021.

려우며,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협력과 모델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주목받는 방식이 바로 리빙랩(Living Lab)이다. 리빙랩은 연구실이나 정책 현장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일상 공간 자체를 대상으로, 각종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혁신 방식이다.² 주민, 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 다양한 주체가 동등한 참여자로 참여하여, 문제 해결을 기술 중심이나 행정 중심으로 접근하는 한계를 해결하고, 문제 해결의 정확성 및 지속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리빙랩은 지역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주민, 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 다양한 주체가 공동 학습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접근하고 해결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역 문제 해결 정책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리빙랩이 단순히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과 방법만이 아니라, 기술 실증과 사업화,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지는 '지역산업화 리빙랩'으로 확장되고 있다.³ 이것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각종 데이터와 해결 과정을, 지역 기반 사업 모델이나 신산업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로, 리빙랩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전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리빙랩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결합을 통하여 지역 혁신 정책에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글로벌대학30 정책의 추진과 맞물리며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글로벌대학의 정책은 대학을 단순히 교육과 연구 기관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지역 문제

해결과 산업 전환을 이끌어가는 중심적 주체로 확장하려는 방향을 지닌다.⁴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학은 지역에 누적된 복합적 문제를 학문적 탐구의 대상이나 해결과제로 설정하고, 지자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성과는 정책적 제안이나 산업적 확장으로 이어지며, 대학의 연구 활동은 지역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대학 연계형 리빙랩은 이러한 역할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 실천 틀로 작동하며, 글로벌 전략을 현실 공간에서 구현하는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는 이러한 정책 환경 속에서 지역 산업화 리빙랩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해 온 지역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모빌리티, 탄소중립 등 지역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리빙랩이 추진되어 왔으며, 이것은 지역 문제 해결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모색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지역적 흐름 속에서 강원대학교(이하 강원대)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리빙랩을 통하여 대학-지자체-주민 간 협력 구조를 만들며, 지역 기반의 지역 혁신 모델을 실천적으로 구현해 왔다.

강원대의 사례는 대학이 지역 문제 해결의 외부자가 아니라,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민이 제기한 문제, 지역의 어려운 과제가 연구 과제로 전환되고, 이를 현장에서 실증한 뒤에 정책과 산업으로 확장하는 과정은 글로벌대학이 지향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강원대의 리빙랩은 지역산업화 리빙랩의 운영 구조와 확산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글로벌대학 시대의 정책 환경 속에서 지역산업화 리빙랩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대학 연계형 리빙랩이 지역 혁신과 산업 전환

2 오영삼·허원빈,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혁신 도구로서 리빙랩(Living Lab)과 콜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 간 비교」, 『사회과학연구』 33(2),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25, 84~123쪽.

3 성지은·김경은, 「지역전환과 신산업 형성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리빙랩: 일본 사례 연구」, 『기술혁신연구』 32(4), 기술경영경제학회, 2024; 하상섭·신상범, 「리빙랩의 관점에서 본 시민 주도 지역브랜드 창출: 원주시 한지 문화산업 사례」, 『인문사회과학연구』 25(2),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4; 장석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산업혁신유형과 도시형 리빙랩(Urban Living)에 관한 연구」, 『기업경영리뷰』 15(1), KNU 기업경영연구소, 2024.

4 정재연, 「글로벌대학30 사업의 현황과 과제」, 『글로벌 어문학 문화 연구』 20,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소, 2025, 4~17쪽.

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강원도와 강원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지역 기반 혁신 모델로서 리빙랩의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조명하고, 향후 글로벌대학과 연계한 지역산업화 전략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글로벌대학과 지역산업화 리빙랩의 형성과 구조

지역산업화 리빙랩은 지역 주민의 일상적 생활공간을 현장 기반 검증 공간으로 전환하여, 지역 문제 해결 과정에서 도출된 방법과 기술이 산업화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사용자 참여형 혁신 모델이다. 연구실이나 현장과 분리된 환경에서 기술의 기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방식과 달리, 실제 사용 환경에서 축적되는 경험과 반응을 핵심 자원으로 삼는다는 점이 차별적이다. 기술의 완성도 자체보다는 지역의 문제를 얼마나 적절하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그 해결 방식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지역 현실에 밀착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변화의 정도는 기술과 서비스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한다.⁵

기존의 지역 혁신 정책은 대체로 공급자 중심의 논리에 따라 추진되어 왔다. 중앙 정부나 지자체가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기술이나 사업을 지역에 도입한 뒤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이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접근은 정책 집행의 속도와 가시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지역마다 다른 생활 조건이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기술 도입 자체가 추가 되는 문제를 드러내기도 했다. 지역산업화 리빙랩은 이러한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며, 문제 정의 시작 단계부터 주민과 다양한 주체가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실제 수요와 생활 조

건을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특징이다.⁶

이러한 리빙랩의 운영 방식은 글로벌대학 정책이 요구하는 대학의 역할 변화와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글로벌대학 정책은 대학을 지역의 교육 기관이나 인력 양성 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 문제 해결과 산업 전환을 함께 고민하고 실행하는 주체로 설정하고 있다. 대학은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연구 역량과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학문적 탐구와 실천적 과제로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역할을 한다.

특히 글로벌대학은 지역의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 구조 변화, 기후 위기와 같은 문제는 단기적인 정책이나 방법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 구조 속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은 지역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학문적 분석의 틀 안에서 재구성하고, 실제 현장에서 검토할 수 있는 연구 과제로 발전시키며, 그 성과를 지역 사회와 순환적으로 나누는 역할을 수행한다.⁷

지역산업화 리빙랩은 글로벌대학이 수행하는 이러한 역할을 현장 수준에서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구상하며, 이를 실제 환경에서 검토한 뒤 산업적 확산으로 연결하는 단계적 과정 속에서 대학의 연구 성과는 지역 사회와 산업 영역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대학은 연구 결과를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전 단계에 관여하며 조율과 매개, 공동 학습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문제 발굴 단계에서는 지역 주민이 일상 속에서 축적해 온 경험과 불편,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생활 차원의 문제 대응 방식이 핵심 자원으로 작동한다. 대학

6 성지은·황정재,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의 관점에서 본 RISE 사업 리뷰와 과제」, 『사회과학연구』 32(3), 사회과학연구원, 2025, 119~154쪽.

7 정진근, 「글로벌대학으로서 강원대학교 특성화 전략과 과제」, 『글로벌 어문학 문화 연구』 20,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소, 2025, 18~30쪽.

5 장석인, 앞의 논문, 131~150쪽.

은 이러한 경험을 학문적 분석의 틀 속에서 재구성하고 연구 가능한 쟁점으로 정리함으로써, 지역의 목소리가 정책과 연구 논의의 범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안 설계 단계에서는 대학 연구진의 전문성이 기술적 선택지와 결합되며, 지역의 조건과 현실에 적합한 해결 방안이 탐색된다. 이 과정에서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주민의 수용 가능성과 실제 운영 환경이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한다.

현장 검증 단계는 지역산업화 리빙랩의 성격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다. 실제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적용 과정은 예상하지 못한 변수와 문제를 드러내며, 이는 연구실 환경에서는 포착하기 어려운 중요한 현실을 보여준다. 대학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론과 기술의 문제를 인식하고, 반복적인 수정과 보완을 거쳐 완성도를 높여 나간다. 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와 해결력은 지역에 적합한 혁신 해결 모델을 만들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업화 확산 단계에서는 현장에서 검증된 기술과 정책 제안이 지역 기반 해결 모델이나 산업화 영역으로 연결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갖게 된다. 글로벌 대학은 이 단계에서 연구 성과를 지역 산업 생태계와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학의 연구가 학술성이나 보고서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경제와 사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같이 지역산업화 리빙랩은 글로벌대학 정책이 지향하는 지역 기반 연구, 현장 검증, 산업화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실행 구조로 볼 수 있다. 대학은 리빙랩을 통하여 지역 문제를 단순한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 사회와 함께 실험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축적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성과는 다시 지역으로 환류되며, 대학과 지역은 상호 의존적인 협력 관계로 자리 잡는다. 이러한 흐름은 글로벌대학 시대

지역 혁신이 지향하는 방향을 구체적인 실천의 수준에서 보여준다.

3. 글로벌대학 주도 지역산업화 리빙랩의 운영 양상: 강원도와 강원대의 사례

강원도는 지리적 환경과 산업 구조, 인구 분포의 측면에서 한국 사회가 직면한 지역 문제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산악과 해안이 함께 형성된 광범위한 생활권, 중소 도시와 농산촌 지역이 공존하는 공간 구조,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강원 지역이 획일적인 개발 방식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춘 혁신 전략을 요구받아 온 배경이 되어 왔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강원도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스마트 모빌리티, 탄소중립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현장에서 검토하고 확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산업화 리빙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⁸

강원 지역에서 추진된 리빙랩은 기술 실험에 한정된 단순한 검증 환경을 넘어, 지역 문제 해결과 산업 육성을 함께 모색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는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조건 속에서 외부 자본이나 대규모 기업 유치에 의존하기보다, 지역 내부의 자원과 생활환경을 토대로 점진적인 변화를 축적하려는 선택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리빙랩은 이러한 방향을 구체화하는 실행 수단으로 기능하며,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현장 기반 검증과 학습의 공간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

춘천시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스마트도시계획 리빙랩과 정밀의료 리빙랩을 중심으로 도시 문제 해결과 산업 전략을 연계해 왔다. 스마트도시계획 리빙랩은 교통과 안전, 환경, 관광 등 도시의 일상과 밀접한 영역에서 시민 참여를 통해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8 강원RISE센터, 『2025년 강원RISE 세부시행계획』, 강원RISE센터, 2025.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해결 방안으로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기술을 먼저 적용하기보다 시민이 체감하는 불편과 요구를 출발점으로 삼음으로써, 도시 정책이 실제 생활 경험과 어긋나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정밀의료 리빙랩은 춘천 전역을 연구와 검증이 이루어지는 의료 혁신의 공간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개별 의료기관이나 연구시설에 한정된 접근을 넘어,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일상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가능성을 검토하려는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은 의료 기술의 정확성과 안전성뿐 아니라, 주민의 수용 가능성과 윤리적 쟁점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지역산업화 리빙랩의 취지와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다.⁹

원주시는 의료기기 산업이라는 기존의 산업 기반을 토대로 디지털 헬스케어 보안 리빙랩을 운영해 온 사례로 주목된다. 의료기기 보안은 기술적 성능만으로 완결되기 어려운 영역으로, 실제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장 기반 검토의 중요성이 크다. 원주의 리빙랩은 의료기기 기업과 연구기관, 사용자 집단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보안성 점검과 개선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산업의 고도화와 안전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해 왔다.

이와 병행하여 추진된 기후위기 대응 리빙랩은 환경 문제를 산업 정책과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지역의 일상과 삶의 질에 밀접하게 연결된 과제로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활 환경의 변화, 특히 아동과 고령층이 체감하는 불편을 중심으로 문제를 설정하고, 주민 참여형 검토 과정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한 사례는 사회적 가치와 기술적 시도가 결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탄소중립이라는 추상적 목표를 지역 주민의

일상적 실천과 연결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¹⁰

홍천군의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은 지방 소도시가 겪는 교통 문제를 주민 주도의 실험을 통해 풀어내고자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고 이동 비용 부담이 큰 조건 속에서 전기차 기반 차량공유 서비스와 친환경 이동 수단을 현장에서 검토함으로써, 교통 문제의 완화와 환경적 목표를 함께 고려했다. 특히 이 사례는 기술을 먼저 도입하기보다 주민의 이동 방식과 생활 동선을 면밀히 살핀 뒤, 기술이 지역의 생활 구조와 어떻게 접합될 수 있는지를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¹¹

이러한 지역적 흐름 속에서 강원대는 글로벌대학 정책과 연계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리빙랩을 운영하며, 대학-지자체-주민이 협력하는 ‘대학 지산학(地産學) 기반 혁신 모델’을 구체화해 왔다. 강원대의 리빙랩은 지역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단순히 외부에서 분석하는 대상이 아니라, 대학 내부의 연구 과제로 전환하고, 이를 다시 지역 현장에서 검증하는 순환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강원대 리빙랩의 특징은 주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지역 차원의 난제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는 설문이나 통계 자료에 국한되지 않고, 주민 참여 워크숍과 현장 조사, 반복적인 의견 교환을 거치며 점차 구체화된다. 대학 연구진은 이 과정에서 축적된 지역의 경험적 지식을 학문적 분석의 대상으로 정리하고, 실제 검토가 가능한 연구 설계로 재구성한다. 이는 지역의 목소리가 연구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문제 해결을 이끄는 핵심 자원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영월 덕포지역 도시재생 및 상권 활성화 리빙랩은 이러한 운영 구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리빙랩은 쇠퇴한 상권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정비

9 춘천시청 정책 알림 참조. <https://www.chuncheon.go.kr>

10 원주시청 정책 알림 참조. <https://www.wonju.go.kr>

11 홍천군청 정책 알림 참조. <https://www.hongcheon.go.kr>

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지역에 축적된 역사·문화 자원과 주민의 생활 동선을 함께 분석하는 데서 출발했다. 주민의 이동 경로와 체류 공간, 지역의 기억이 남아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실험적 개입을 설계함으로써, 실제 구현 가능성과 장기적 지속성을 함께 고려한 대안을 모색했다.¹²

이 과정에서 대학 연구진은 공간 분석과 문화 자원에 대한 해석, 주민 인터뷰 등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다층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활용 가능성과 산업적 확장 여지를 함께 검토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정주 환경 개선이라는 사회적 성과로 이어졌을 뿐 아니라, 소규모 상권의 회복과 지역 기반 경제의 활성화로도 연결되었다. 이는 대학의 연구가 추상적인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현안 해결과 산업적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강원대의 리빙랩 사례는 대학이 지역 문제 해결 과정에서 외부 자문 역할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 내부의 학습과 실험을 함께 수행하는 주체로 기능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대학이 축적해 온 연구 역량과 지역 주민의 경험,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이 결합된 리빙랩은 지역산업화 전략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며, 글로벌대학 정책이 지향하는 대학과 지역의 관계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같은 강원도와 강원대의 리빙랩 사례는 지역산업화 리빙랩이 추상적인 정책 구호를 넘어, 지역 현실 속에서 작동 가능한 혁신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의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고, 현장에서의 검토와 학습을 거쳐, 그 성과를 다시 지역 사회와 산업으로 환류시키는 구조는 앞으로 글로벌대학과 연계한 지역 혁신 전략을 구상하는 데 중요한 참고 지점을 제공한다.

4. 글로벌대학 관점에서 본 지역산업화 리빙랩의 의미

글로벌대학 정책은 대학을 국가 단위의 고등교육 기관이나 지역과 분리된 지식 생산의 거점으로 바라보아 온 기존 인식을 전환한다. 이 정책에서 대학은 지역이 직면한 문제 해결과 산업 전환을 함께 수행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하며,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의 기능 역시 지역의 맥락 속에서 새롭게 구성된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의 역할 범위를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과 대학의 관계를 일방적인 지원이나 봉사의 틀에서 벗어나 상호 의존적인 협력 구조로 재편하려는 지향을 담고 있다.¹³

이러한 정책적 전환 속에서 지역산업화 리빙랩은 글로벌대학의 역할을 현실 공간에서 구체화하는 실천적인 장치의 역할을 한다. 리빙랩은 지역의 일상 공간을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전환함으로써, 대학의 연구 활동이 지역 사회와 직접 맞닿을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대학이 축적해 온 학문적 지식과 연구 방법은 추상적인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이 직면한 실제 문제와 연결되는 경로를 갖추게 된다.

글로벌대학의 관점에서 볼 때 지역산업화 리빙랩이 지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대학 연구 방식의 변화에 있다. 기존의 대학 연구는 연구자 주도의 문제 설정과 성과 산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지역은 주로 연구 대상이나 사례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리빙랩을 매개로 한 연구에서는 지역 주민의 생활 경험과 요구가 문제 설정의 출발점으로 작동한다. 대학은 이러한 경험을 학문적 언어로 정리하고, 현장에서 검토 가능한 연구 과제로 재구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연구는 단발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활동이 아니라, 반복적인 시도와 조정을 통해 축적되는 장기적 학습의 과정으로 성격이 전

13 정재연, 「글로벌대학30 사업의 현황과 과제」, 『글로벌 어문학 문화 연구』 20,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소, 2025, 4~17쪽.

환된다.

아울러 지역산업화 리빙랩은 대학의 산학협력 개념을 한층 확장한다. 기존의 산학협력이 주로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리빙랩을 기반으로 한 협력은 주민과 공공 부문까지 포함하는 다층적인 관계 구조를 형성한다. 이때 산업화는 기술이 시장에 진입하는 단계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사회가 이를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건까지 포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은 기술을 연결하는 매개자이자 사회적 조정자로 작동하며,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과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글로벌대학 정책이 중시하는 또 하나의 축은 지역 맞춤형 혁신이다. 지역마다 산업 구조와 인구 구성, 생활 환경이 서로 다른 조건 속에서 획일적인 기술 도입이나 동일한 정책 적용은 필연적으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지역산업화 리빙랩은 이러한 진제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특성과 조건에 부합하는 해결 방안을 현장 검토를 통해 모색한다. 대학은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관찰과 연구를 통해 축적된 지식을 토대로, 기술과 서비스가 지역의 맥락에 맞게 조정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이러한 접근은 글로벌대학이 지향하는 ‘지역에 뿌리내린 보편성’이라는 목표와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강원대가 추진해 온 지역사회 문제 해결 리빙랩은 글로벌대학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온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강원대의 리빙랩은 지역 주민이 제기한 문제를 연구 과제로 전환하고, 이를 현장에서 검토한 뒤 정책과 산업 영역으로 확장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는 대학이 지역 문제 해결의 외부 자문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내부의 학습과 실험을 주민과 함께 수행하는 공동의 주체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글로벌대학의 관점에서 볼 때 지역산업화 리빙랩이 지니는 또 하나의 의미는 대학의 교육 기능과의 결합 가능성에 있다. 리빙랩은 연구와 현장 검토가 이루어지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학생과 연구자가 지역 문제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 작동한다. 이를 통해 교육과 연구, 지역 실천은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작동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되며, 글로벌대학이 지향하는 실천 중심 교육의 토대가 마련된다. 학생들은 지역 문제를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문제를 관찰하고 해결 과정을 경험하면서 지역과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동시에 글로벌대학 관점에서 지역산업화 리빙랩은 대학과 지역 간 관계의 재구성을 요구한다. 리빙랩은 단기간에 성과를 가시화하기보다, 반복적인 현장 검토와 조정을 통해 점진적인 변화를 축적하는 방식에 기반한다. 이러한 특성은 단기 성과를 중시하는 기존의 평가 체계와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대학 정책과 연계된 리빙랩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연구 활동과 지역 협력의 성과를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지역산업화 리빙랩은 글로벌대학 정책이 요구하는 대학 역할의 변화를 현실 속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작동한다. 리빙랩을 매개로 대학은 지역 문제를 함께 설정하고, 현장 검토와 학습을 거치며, 그 결과를 다시 지역 사회와 산업 영역으로 되돌리는 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과정은 대학과 지역이 서로 분리된 주체가 아니라, 공동의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협력적 관계로 구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산업화 리빙랩은 향후 지역 기반 혁신과 대학 정책을 연결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실천적 의미를 지닌다.

5. 마무리와 과제

지역산업화 리빙랩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개별 사업 방식이나 단일한 정책 수단을 넘어, 지역과 대학, 산업

과 주민의 관계를 새롭게 엮어 가는 혁신의 구조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특히 글로벌대학 정책 환경 속에서 리빙랩은 대학의 연구 역량이 지역의 일상과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통로를 마련하며, 추상적인 정책 목표를 현실 공간에서 실행 가능한 형태로 전환해 왔다.

강원도의 사례는 이러한 가능성을 비교적 분명하게 보여준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스마트 모빌리티,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전개된 리빙랩은 기술 검토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문제 해결과 산업 고도화를 함께 지향해 왔다. 특히 주민 참여를 전제로 한 운영 방식은 기술 중심 접근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며, 지역의 생활 조건과 수용 가능성을 혁신 과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강원대가 수행한 역할은 글로벌대학이 추구하는 대학과 지역의 관계 변화를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강원대의 리빙랩은 주민이 제기한 일상적 문제를 연구 과제로 정리하고, 이를 실제 지역 공간에서 검토한 뒤 정책과 산업으로 확장하는 단계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대학이 지역 문제 해결의 외부 자문자나 보조적 존재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내부의 학습과 실험을 함께 수행하는 중심 주체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성과와 함께 몇 가지 구조적인 과제도 확인된다. 리빙랩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보다, 반복적인 현장 검토와 조정을 통해 점진적인 변화를 축적하는 방식에 기반을 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평가 체계는 여전히 단기 성과 지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대학 연구자와 지역 참여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실험과 학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대학 참여 리빙랩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책임연구원과 참여 연구진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는 기존의 학문 분과 중심 연구와 다른 성격을 지니며, 조정과 협력, 현

장 대응 능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역량이 연구 평가나 경력 관리 과정에서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면, 리빙랩 참여는 일회적 시도로 그칠 위험을 안게 된다.

산업으로의 확산 단계에서도 과제가 남아 있다. 현장에서 가능성이 확인된 기술과 서비스가 실제 산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 생태계와의 연계, 공공 조달이나 정책 사업과의 접합, 그리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주체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대학은 기술 이전의 주체라기보다, 지역 산업 전반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중간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업화 리빙랩은 글로벌대학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실천 모델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리빙랩을 통해 대학은 지역의 문제를 함께 정의하고, 현장 검토와 학습을 거치며, 그 성과를 다시 지역 사회와 산업으로 되돌리는 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이는 대학과 지역이 분리된 주체가 아니라, 공동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협력 관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글로벌대학과 연계한 지역산업화 리빙랩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성과 평가 체계 정비, 대학 참여 리빙랩에 대한 제도적 인정, 그리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 전략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리빙랩은 지역 난제 해결을 넘어, 지역 기반 미래 산업과 대학 혁신을 함께 이끄는 중요한 실행 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강원RISE센터, 「2025년 강원RISE 세부시행계획」, 강원RISE센터, 2025.
- 구형수,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전략』, 국토연구원, 2018.
- 성지은·김경은, 「지역전환과 신산업 형성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리빙랩: 일본 사례 연구」, 『기술혁신연구』 32(4), 기술경영경제학회, 2024.
- 성지은·황정재,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의 관점에서 본 RISE 사업 리뷰와 과제」, 『사회과학연구』 32(3), 사회과학연구원, 2025.
- 오영삼·허원빈,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혁신 도구로서 리빙랩(Living Lab)과 콜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 간 비교」, 『사회과학연구』 33(2),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25.
- 유춘동, 「강원도 속초 설악동의 인문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 활성화 연구」, 『글로벌 어문학 문화연구』 20,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소, 2025.
- _____, 「군사접경지역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의 역사문화자원 콘텐츠와 활용 방안」, 『글로벌 어문학 문화연구』 19,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소, 2025.
- 유한별, 「한국 지방소멸 요인과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 머신러닝 방법을 통한 탐색」, 『지방정부연구』 24(4), 2021.
- 장석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산업혁신유형과 도시형 리빙랩(Urban Living Lab)에 관한 연구」, 『기업경영리뷰』 15(1), KNU기업경영연구소, 2024.
- 정재연, 「글로벌대학30 사업의 현황과 과제」, 『글로벌 어문학 문화연구』 20,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소, 2025.
- 정진근, 「글로벌대학으로서 강원대학교 특성화 전략과 과제」, 『글로벌 어문학 문화연구』 20,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소, 2025.
- 하상섭·신상범, 「리빙랩의 관점에서 본 시민 주도 지역브랜드 창출: 원주시 한지 문화산업 사례」, 『인문사회과학연구』 25(2),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4.

Abstract

Regional Industrialization Living Labs under the Glocal University Policy

Cases of Gangwon Province and Kangwon National University

Yoo, Choon-Dong |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operational structures and significance of regional industrialization living labs within the policy framework of the Glocal University initiative, focusing on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s regional decline, industrial hollowing-out, and demographic change intensify, living labs have emerged as an alternative to short-term or technology-driven innovation models by linking everyday local problem-solving with technological experimentation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In Gangwon Province, living labs in digital healthcare, smart mobility, and carbon neutrality function as participatory platforms that connect residents' daily lives with regional industrial strategies. The case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hows how a university can translate local needs into research agendas, conduct field-based experimentation, and connect outcomes to policy and industrial applic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regional industrialization living labs can reorganize university-region relations around partnership and co-production, offering a practical model for sustainable regional innovation under the Glocal University policy.

Keywords Glocal University Policy, Regional Industrialization Living Lab, University-Community Collaboration, Field-Based Validation, Place-Based Innovation,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이 논문은 2026년 3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6년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6년 4월 2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